

금호산업 매각 공고... 박삼구회장 우선 매수 촉각

채권단 지분 58% 매각 ... 인수희망서 25일 접수

인수가 6000억~1조원 예상 ... 관건은 자금력

금호산업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만큼, 박 회장의 행보에 재계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이하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약 58%)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인수희망서(LOI)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매각은 산업은행 인수합병실과 크레디트스위스(CS)가 주관한다.

채권단은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관급 공사 수주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배트

남 등지에서 독보적인 사업기반 등을 가진 회사인 만큼 과감한 투자를 할 만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로, 그룹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30.08%)을 가진 금호산업은 인수하면 항공업 진출은 물론 터미널 사업까지 사업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터미널은 금호고속의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을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인수를 성사시켜 그룹 재건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구상을 그동안 밝힌 바 있다.

만약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하면 올 하반기엔 금호고속까지 되찾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휩쓸렸던 금호아시아나가 재출발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박 회장은 현재 채권단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채권단이 인수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인수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박 회장은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총 10.6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즉 채권단으로부터 40%의 지분만 추가인수하면 금호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는 셈이다. 변수는 자금이다.

세계에서는 금호산업의 인수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최소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단은 원금 회수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을 1조원(1주당 6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경쟁이 치열해지면 인수대금이 1조 500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자금 마련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상황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8일 금호산업 매각과 관련, "(인수자에게) 인수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 박삼구 회장 등에 인수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다

1월 증가액 2852억원

지난해 평균 10분의 1

한동안 매달 수조원씩 늘던 주택담보대출의 증세가 새해 들어 꺾였다. 겨울철이 비수기인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의 효과가 서서히 식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월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99조8145억원에서 올해 1월 말 300조 997억원으로 한 달간 285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석 달 연속 매달 3조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된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3조8232억원, 11월 3조 8252억원, 12월 3조5446억원에 달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해 1월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증가액의 10분의 1도 안된다. 6개 은행 중 4개 은행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1조6000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기록한 국민은행은 올해 1월 1709억원이 줄었다. 농협은행은 1280억원, 우리은행은 533억원, 하나은행은 91억원이 각각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인 데는 겨울철 비수기 효과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세에 따른 경기감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신규 대출상품 출시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은 대출을 받아서 생활, 창업자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갚는 데 쓰이는데, 직장인들이 연말 보너스 등을 받으면서 이러한 수요가 잠시 주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중기청, 지역중기 수출역량 강화사업 신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봉걸)은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역량 강화사업 신청을 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며 내수 기업이나 수출실적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70~90% 이내에서 수출 초기보급을 최대 2000만원, 유망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 무역교육, 디자인, 해외시장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 초보기업 63곳, 유망기업 15곳이 모두 10억원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청은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한 글로벌 역량진단을 올해 수출역량 강화 사업 평가에 적용해 참여기업의 글로벌 정도를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기업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기 절반 설 자금사정 어렵다"

중기중앙회 808곳 설문

"상여금 지급" 63.8%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올해 설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08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4.3%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기업은 9.6%에 그쳤다.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 매출감소(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판매대금 회수 지연(40%), 납품단가 인하(27%)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예년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27.4%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기업에 동일하게 물었을 때 이 비율은 32.5%로 올해보다 높았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37.2%는 부동산 담보요구(37.2%)를 꼽았다.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5%)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평균 설 자금이 2억840만원 필요하지만 4870만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 자금을 100%로 볼 때 확보율이 76.

6%에 그쳤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부족한 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30.2%)하거나 결제를 연기(24.2%)할 계획이다.

설에 상여금(현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3.8%로 지난해 62.6%에서 소폭 올랐다.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의 63%,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평균 74만원을 상여금으로 쓸 계획이다. 또 77.1% 기업은 설에 5일(2월 18일~22일)간 설 계획을 세웠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의 설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소폭 개선됐다"며 "(하지만) 지급 실행이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만금 금융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1	13 25 26 29 33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1,855,587,235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0,689,038	35
3	5개 숫자 일치	1,499,465	1,650
4	4개 숫자 일치	50,000	85,675
5	3개 숫자 일치	5,000	1,427,626



입춘 앞두고 싱싱한 봄나물 인기
입춘(4일)을 사흘 앞둔 1일 백화점 푸드마켓 매장에 입맛을 돋우는 두릅과 냉이, 봄동, 섬초 등 각종 봄나물이 나와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세일글

"지역 중소·창업기업 금융지원 충실"

강경완 KDB산업은행 금남로지점장

"새롭게 만들어진 지점의 첫 장으로 발령받은 만큼 자부심을 갖고 지역 정책금융 지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KDB산업은행 금남로지점의 첫 지점장으로 부임한 강경완(52) 지점장은 "광주 금남로가 역사적으로 현대사의 상징이듯 호남을 대표하는 정책금융 기관으로 입무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지점장은 "지역 내 새로운 정책 금융수요의 발굴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보유 기업

이나 창업기업 육성지원의 금융지원을 충실히 수행해 산업은행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은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표출신인 강 지점장은 목표 문태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 MBA 과정을 나왔다. 1990년 산업은행에 입사 본사 수출입 금융팀장, 홍보팀장, 금융소비자보호 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연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구 7면길 70m 44호 2층 B106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세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안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일 앞둔브랜드로 손님을 꼭꼭 잡아 번승을 얻고있습니다.